

‘근로시간 단축’ 코앞 혼란 가중

주52시간 근무도입 문제없나

<2>업계·근로자반응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 운영 등의 문제를 놓고 혼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4일 광주중견기업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52시간

단축근무제를 시행해야하지만, 이에 필요한 인력채용과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난 2월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준비기간은 4개월에 불과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은 시간이 돈인데 단축근무를 시행하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최악의 경우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기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고 이는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52시간 단축근무를 놓고 근로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김 모씨(34)는 “회사에서도 52시간 단축근무에 맞춰 시간을 줄이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벌써부터 상여금이 20%

가량 깎였는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이 모씨(31)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52시간 단축근무를 놓고 과연 노동청의 근로감시가 제대로 이뤄질까 의문이 든다”면서 “근로자들이 위협으로 사업장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사문화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 관계자는 “제조업 등 교대사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이다”면서 “이 근로법안에 맞추려고 하면 임금삭감이 될 것이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좋지 못한 역행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나라 기자

‘건설현장 재해를 낮추시다’

익산국토청, 상반기 안전교육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최근 전남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건설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 지역 건설현장 관계자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사고사례 소개와 예방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로부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지하안전정책 소개와 사고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타워크레인 전도나 지반침하, 가시성불량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분석과 안전 및 품질강화 방법 등 재발 방지책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된 ‘2018년 상반기 건설안전교육’에 참석한 호남지역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소홀하기 쉬운 건설기계의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도 이뤄졌다.

익산국토청 김철홍 건설안전국장장은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의 만남의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사고예방과 실무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빛고을 재도전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경제진흥원, 3년 이내 재창업 기업대표 지원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구)은 빛고을 재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할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빛고을 재도전 지원사업은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재기도전자에게 재도전 교육과 집중멘토링, 창업공간 등을 지원해 재창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1기 교육생 김창식 대표(두루도라)는 재활용품 수거와 분리, 세탁 등으로 다문화 가족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이루내고 있으며, ▲제1기 교육생 정영 대표(대성)는 현재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과 정보

통신산업진흥원의 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 검증혁신 사업에 선정돼 채밀 기능성 발동 기술을 상용화 및 고도화하는 중에 있다. 본 교육의 대상자는 현재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이다.

오는 22일까지 모집을 진행하며, 지원 내용은 ▲재도전자 역량강화 교육 ▲집중 멘토링 ▲신용회복 컨설팅 ▲창업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문의는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연락(062-960-2688·2690)하거나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www.gep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글로벌게임센터 사업설명회

게임산업 생태계 강화 등 3개부문 추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오 창렬·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사업설명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도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추진하는 ▲전남 게임산업 생태계 강화 ▲제감형게임 제작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등 총 3개 부문 10개 단위 기업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쉽게 설명하여 관련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진흥원은 올해 제감형 게임 제작과 유통 단계별 특화역량을 보유한 국

내·외 기업을 유치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제작, 글로벌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를 참조하거나 차세대콘텐츠팀(061-339-6913)으로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하다.

한편, 전남도내 제감형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성장 지원에 앞장서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나라 기자



광주은행은 지난 1일부터 광주은행 창립 기념일인 11월20일까지 ‘응답하라! 1968’ 이벤트를 운영한다.

광주은행 ‘응답하라! 1968’ 이벤트

창립 50주년 고객 대상에 ‘THE K9’ 제공

광주은행의 창립 50주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가 6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광주은행 창립 기념일인 11월20일까지 ‘응답하라! 1968’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30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스토리를 수기공모 받아 진행된 첫번째 이벤트 ‘평생동행 31+’에 이어 실시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계좌개설을 하고, 입출금 평균잔액의 합계금액이 50만원이상 ▲입출금 자유로운예금, 거치식 예금, 적립식예금, 펀드, 원화대출 평균잔액의 합계금액이 5000만원이상 ▲카드 이용액이 1000만원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이벤트에 자동응모가 되고 12월에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광은고객 대상’ 1명에게는 THE K9, ‘광은고객 대상’ 2명에게는 스타일러, ‘광은고객 대상’ 5명에게는 공기정정기, ‘응답상’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1만원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등 총 1008명의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한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들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이벤트가 광주은행을 믿고 오랜 기간 거래해주시신 고객님들께 행복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로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2018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광주·전라·제주’ 지역예선이 4일 유·스퀘어 2층 동산아트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광주·전라·제주 지역예선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열려

2018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광주·전라·제주’ 지역예선이 4일 유·스퀘어 2층 동산아트홀에서 열렸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1개 팀 50여명이 참가했으며, 5시간 동안 대회

가 진행됐다. 2018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는 각 지역별로 8일까지 개별 대회를 연 후, 지역별 대회 중 우승팀들을 모아 9월 14일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최종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대규모 연회장에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까지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P&J 피앤제이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